

## 47 차량정비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성별	남성	나이	45세	직종	차량정비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93년부터 □사업장에서 약 1년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고 이후 1996년 □사업장에서 약 1년 3개월간 트렁크 실링 작업을 하였다. 2000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6년 1개월 동안 정비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3년 5개월 동안 시트 조립 업무를 하였다. 2011년 4월부터 소변이 자주 나오고 통증이 반복되는 증상있어 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초음파 및 CT 방광내시경의 조직검사 결과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 2 작업환경

○○○은 1993년부터 1년간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도장작업을 야외에서 수행하였다. 철판을 샌드블라스트로 처리한 뒤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고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주5일 하루 8시간씩 일하였다고 한다. 1996년부터 1년 3개월간 자동차 트렁크 실링 작업을 8시간씩 하였으며 근무 중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링작업을 수행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장에서 공장 납품차량의 오일교환, 부동액, 타이어 교환, 사이드 브레이크 교환, 차량 기름 주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루 5대 정도 정비를 하였으며, 오일과 부동액 교환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유해물질이 얼굴에 튀고, 눈과 입, 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주간 8:00~17:00 까지 근무 후 통상 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성차량에 시트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는 8:00~17:00까지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야간근무는 20:00~익일 8: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 4 유해인자

- 기타 작업환경요인(흡연)

## 5 의학적 소견

○○○은 2011년 소변이 자주 나오고 통증이 반복되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 및 CT 방광내시경의 조직검사 결과 방광암을 진단받았고, 2011년 10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적 방광부분절제술, 2011년 12월 □병원에서 방광전절제술 시행하였으며, 2012년 1월 소장 구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도장작업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옥외 작업으로 노출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동차 정비 작업 시 직접적인 디젤엔진 배출물질 및 PAHs 노출이 있을 수 있는 주요 작업은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노출은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상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여 근로자 ○○○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